

# 국제곡물시세 동향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 옥수수

최근의 미국산 옥수수시세는 지난 연말이래 큰폭의 시세변동 없이 C&F 톤당 140 불선에서 지속적인 안정을 보이고 있다.

이미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옥수수 식부작업이 진행되었고 식부진척율도 양호한 편이다. 따라서 금후 가장 중요한 시세변동요인은 일기조건과 신곡식부작업이 될 것이며 식부작업은 양호하게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엘레베이터 폭발로 인해 소련이 미국산 옥수수에 대한 구매를 늘려가고 있긴 하나 전반적으로 구매수요감소등으로 인해 별로 시장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중순경에도 시카고 곡물시장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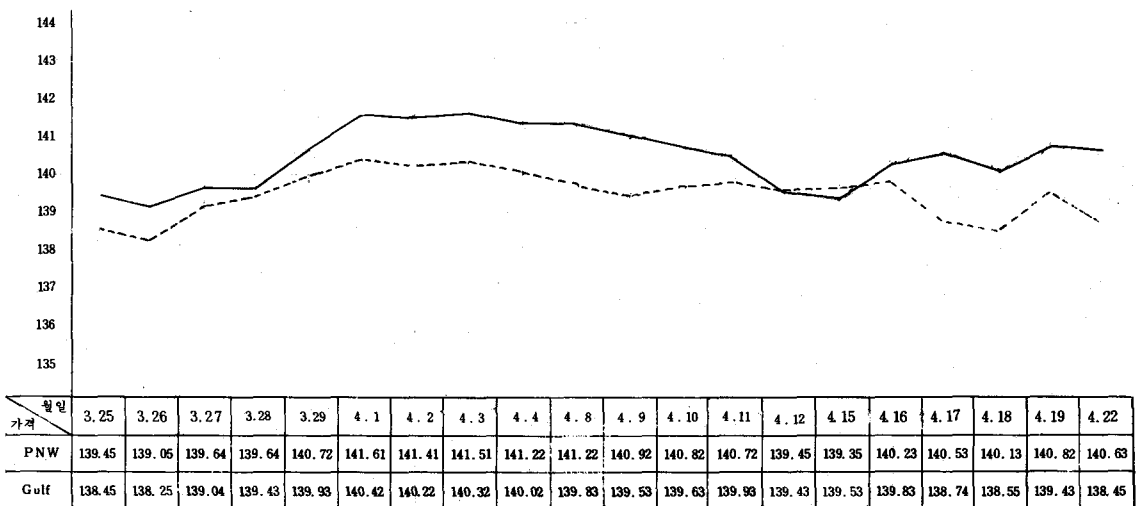
변에서 소련의 50만톤 추가구매설이 흘러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은 안정을 보였었다.

또한 지속적인 미국달러의 강세역시 곡물시세의 상승을 저지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달러시세 역시 급격한 변화가 없는 한 옥수수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월도를 중심으로한 현물시세는 산지 식부작업 등으로 인해 출하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 소폭의 강세가 예상되기도 한다.

또한 그동안 낮은 시세를 보여오던 중공산 옥수수 시세는 최근들어 강세를 보여오고 있는데 중공정부 경제무역부는 85년 4월15일자로 주요원자재인 옥수수, 원유, 석탄 등 15개품목의 수출허가증(E/L)을 중앙정부가 직접 심사 후 발급할 예정이다.

### 1. 옥수수 시세

(C&F \$/TON)



따라서 현재 각 성단위로 심사 발급하던 사료용 옥수수 수확가격 및 조건 등도 심사 대상이 되므로 금후 중공산 곡물시장의 가격도 상당수준 상향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중공산 대두박시세는 C&F 톤당 150불 선으로 미국산 및 브라질산 대두박시세와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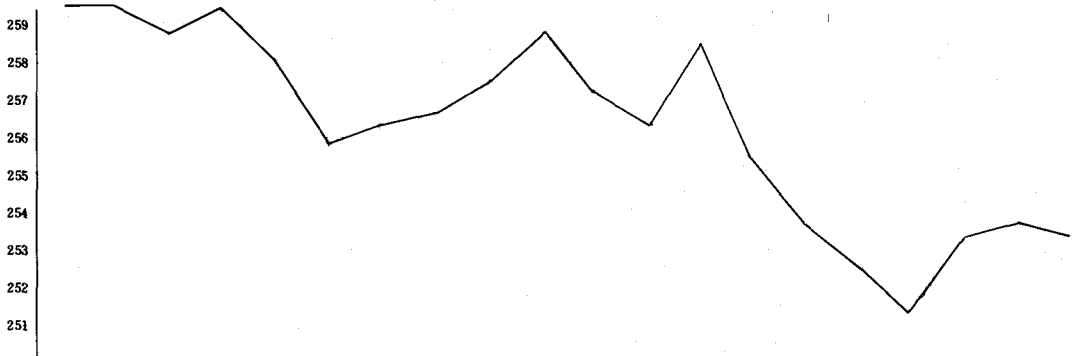
이와같이 대두박 시세가 안정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요 대두생산국인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재고수준이 대두제품에 대한 수입국들의 수요감소로 인해 충분한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금후 대두 및 대두박시세는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기후조건과 식부작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가격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강우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남미산 대두는 수확이 종료되는 6월경에는 신곡 출하압력으로 인해 브라질산 대두박시세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 대두 및 대두박

한편 시장변동폭이 큰 품목인 미국산 대두시세 역시 최근 C&F 톤당 250불선에서 지속적인 안정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산 대두박시세 역시 대두시세의 약세와 대두박 수급의 안정에 힘입어 C&F 170불선에서 안정을 보이고 있다.

### 2. 대두 시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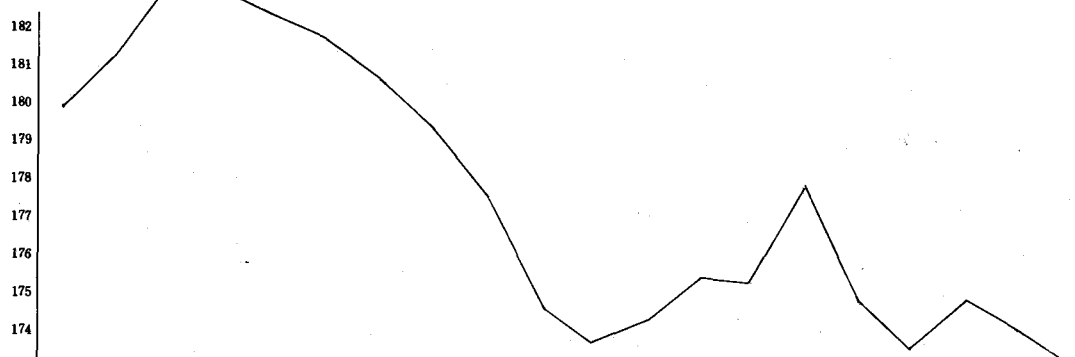
(C&F \$/TON)



| 월·일 | 3.25   | 3.26   | 3.27   | 3.28   | 3.29   | 4.1    | 4.2    | 4.3    | 4.4    | 4.8    | 4.9    | 4.10   | 4.11   | 4.12   | 4.15   | 4.16   | 4.17   | 4.18   | 4.19   | 4.22   |
|-----|--------|--------|--------|--------|--------|--------|--------|--------|--------|--------|--------|--------|--------|--------|--------|--------|--------|--------|--------|--------|
| 가 격 | 259.73 | 259.73 | 258.91 | 259.27 | 257.99 | 255.87 | 256.24 | 256.61 | 257.44 | 258.72 | 257.25 | 256.24 | 258.54 | 255.32 | 253.76 | 252.48 | 251.37 | 253.30 | 253.06 | 253.12 |

### 3. 대두박시세

(C&F \$/TON)



| 월·일 | 3.25   | 3.26   | 3.27   | 3.28   | 3.29   | 4.1    | 4.2    | 4.3    | 4.4    | 4.8    | 4.9    | 4.10   | 4.11   | 4.12   | 4.15   | 4.16   | 4.17   | 4.18   | 4.19   | 4.22   |
|-----|--------|--------|--------|--------|--------|--------|--------|--------|--------|--------|--------|--------|--------|--------|--------|--------|--------|--------|--------|--------|
| 가 격 | 179.91 | 181.01 | 183.21 | 181.21 | 182.22 | 181.78 | 180.57 | 179.24 | 177.48 | 174.72 | 173.62 | 174.17 | 175.39 | 175.17 | 177.70 | 174.72 | 173.40 | 174.72 | 174.06 | 172.96 |

## 기타곡물

미국산 수수시세가 C&F 톤당 130불선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중공산 수수시세는 FOB 117~8불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같이 금년들어 수수시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옥수수시세가 약세를 보인 탓도 있지만 호주와 아르헨티나 등의 생산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바히브랑카항 폭발사고 등으로 인해 적출능력마저 크게 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AE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84/85년도 호주산 수수의 수확예상은 1월에 추정했던 것보다 약 40만톤 낮아진 120만톤으로 추정되고 있고, 아르헨티나산도 2~3월의 강우부족 등으로 640만~660만톤에서 600만~620

만톤으로 하향조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산수수와 중공산수수에 대한 구매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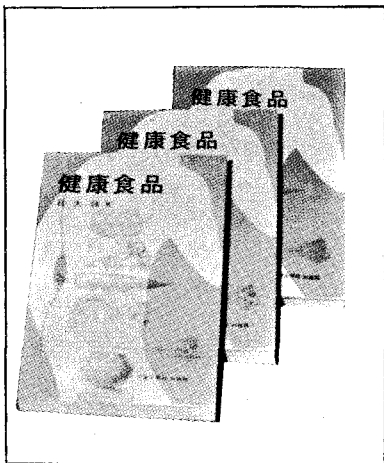
한편 7~9월선적 대상의 소맥피가격은 캐나다산의 경우 C&F 톤당 123불,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산이 110불, 칠레, 아르헨티나산이 100불, 중국산이 105불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호밀시세는 캐나다산의 경우 C&F 톤당 122~123불선을 보여주고 있고, 폴란드산의 경우 시험구매이후 강세를 보여 C&F 톤당 117불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태국산 타피오키는 최근 소련이 태국의 가장 큰 생산업체인 UMC사와 FOB50불선에서 바터조건으로 수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폭의 강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C&F 톤당 60불선에서 시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 신간안내

# 건강식품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 운동, 휴양, 정신적 안정의 4대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건강한 몸으로 일생을 마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불로장수는 인류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건강은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다」라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이 책은 자연건강식품, 건강식품과 식이요법, 발효식품, 장수와 식생활 등 4편으로 꾸며져 있다.

이 책은 식품연구로 너무나 많이 알려진 유태중(고려대, 식품공학 전공)교수의 역저로서 고려대 출판부에서 나왔다.

국판 470p로 3,500원

본회(752-6917)로 연락하면 3,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